

사탄의 덫

작성일 : 2012년 3월 27일 새벽 2시 21분

작성자 : 장정희

(다리굴기도굴로 오다가 얼음이 녹지 않은 곳에서 미끄러질 뻔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예수님께 여쭙니 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을 펴라.” 하셨습니다.)

* 성자 예수님 말씀 *

나 예수와 너희의 사랑을 훼방하기 위해 사탄이 쳐 놓은 덫에 대해 말하노라.

누가복음 14장 1절-6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나 아니하나.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1. 덫-염탐

사탄이 덫을 쳐 놓고

항상 너희를 엿보고 있음을 잊지 마라.

안식일에 그들은 나 예수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치 않고

나 예수를 힐문코자 나를 염탐하였으니

이것이 이 시대 악평자와 사탄이 쳐 놓은 덫이다.

엿보는 것엔 두 가지가 있으니

사탄이 우릴 엿보는 것과

우리가 사탄의 행악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인사탄들의 행위는

우리가 그들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엿보는 것이냐.

일단 그들은 떳떳하지 않다.

불의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나 예수를 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천 년 전 그들은 나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았다.

이 염탐이 극적으로 변질된 것이

가룟 유다를 은 삼십으로 사서 나를 팔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사탄들은 악평자들의 소행을 통해

각종 불법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엿보게 하니

너희는 불의한 목적으로 엿보게 하는 사탄을 분별하라.

사탄은 너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나 예수와 너희의 사랑을 훼방코자 엿보는 것이다.

(이 때 하얀 뱀이 다리굴기도굴로 들어오다 찬양하니 나가는 것을 본 환상이 생각났습니다.)

맞다.

너희의 찬양을 사탄이 엿보고 있음을 본 환상이다.

이처럼 사탄은 항상 너희의 마음을 엿보고 있다.

죄의 시작인 너희 마음이 죄를 짓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 영, 혼, 육, 마음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고 있다.

너희 마음의 범죄 함과 육의 범죄 함

삶의 범죄 함을 힐문코자

그들은 나 예수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을

힐문하려 했던 것처럼

그들의 쳐 놓은 덫에 우리의 영, 혼, 육, 마음이 걸리라고

항상 덫을 쳐 놓고 엿보고 있음을 잊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덫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예수가 말씀인고로 말씀을 확실히 아는 자는

덫과 덫이 아님을 쫓갤 수 있으니

이는 말씀을 알기 때문이다.

말씀을 아는 것이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니

너희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라.

진리가 너희를 덫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로 비진리의 덫을 물리치니라.

2. 덫-교만

교만의 덫을 피하는 방법은 겸손이다.

누가복음 14장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겸손하면 교만의 덫을 피해 갈 수 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욕심내면
반드시 무렵과 심판을 당하니
교만한 자는 자기 무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말씀을 깨달은 자는 결코 타인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니

교만은 사탄이 쳐 놓은 덫임을 알기 때문이다.
루시퍼가 인간의 사랑을 차지하고자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하였으니
바로 아담 하와의 이성타락 아니냐.
루시퍼가 쳐 놓은 그 교만의 덫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든 자가 하와이니
이는 하나님처럼 되고픈 하와의 욕심 때문이었다.

욕심은 교만을 낳는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욕심으로 스스로 높이는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삼위와 선생이 높이는 자인 겸손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는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으니
표상이 선생이다.
선생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니
선생을 통해 이 땅에 선포되는 진리와 사랑이다.

그러나 선생은 진리와 사랑의 영광을
오히려 겸손으로 낮추기에
삼위께서 선생을 높이는 것이다.
선생이 자신을 가장 낮추고 그곳에 거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니
바로 시대 재림 휴거 말씀으로 선생을 높이신다.
선생은 시대 재림 말씀으로
자기를 가장 낮추어 그곳에 있고
삼위는 시대 복음 나팔로
주님의 육으로 선생을 가장 높이고 있으니
이것이 진정한 일체이니라.

한 뜻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누가복음 14장 13절-14절처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병들어 아픔을 호소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할지니 이는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기 사상과 세상 학문으로 교만한 자는
욕심이 가득한 자로
절대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의인의 부활인 육 휴거, 영 휴거 시대는
겸손한 자만 휴거되고
교만한 자는 휴거되지 못하리라.

3.덫-물질, 권력, 이성

누가복음 14장 16절-20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
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18절의 밭은 물질, 19절의 소는 권력이요,
20절의 장가는 이성으로 이는 사탄이 쳐 놓은
세상의 덫이니라.

이 세 가지를 원하고 바라는 자는 덫을 피하지 못하니

이 덫은 시대 재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입을 막느니라.

그리하여 시대 나팔을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자에게 외치니

이가 지금 섭리사 너희들이다.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22절처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까지 섭리사가 신부들로 온전히 채워지지 못했으니

어서 나 예수와 함께 전도하자.

뒤통을 피하는 것이 자기 관리며 형제 관리다.

24절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처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섭리사에 있다가 선생을 부인하고 나간 자들이다.

선생을 부인하지 않으면

섭리를 결코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절대 재림 혼인 잔치인

육 휴거, 영 휴거 역사에 동참할 수 없으니

이것이 그들의 환난이자 심판이다.

고로 나 예수와 뒤통을 피하는 방법을 얘기하니

누가복음 14장 27절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라라.

삼위와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

너희는 사랑의 힘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제 십자가도 질 만한 자면 형제 십자가까지 지고

나 예수를 따라라.

그러면 결코 사탄들이 쳐 놓은 뒤통에 빠지지 아니하니

뒤통은 십자가 의미인 희생과 사랑의 반대 의미인

미움과 편안함 즉 이기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자신만을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나 예수와 선생처럼 타인을 위한 사랑이

자신을 위한 사랑이다.

고로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나 예수와 선생을 사랑함으로 지고

십자가 길을 따라 자기와 남도 구원시켜

사탄이 쳐 놓은 뒤통을 피하여 내 신부가 되어라.

이것이 영 휴거되는 방법이니

누가복음 14장 33절-34절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신과 남을 위해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고 섭리길을 가자.

소금이 무엇이나?

영 휴거될 나의 신부이며 그 맛은 사랑이지 않겠느냐.

사랑은 희생이며 희생이 사랑이다.

그리하여 희생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 신부라 할 수 없노라.

날마다 자신을 희생시키는 삶을 사는 선생은

오직 나 예수와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그리하는 것이니

선생의 희생은 사랑이다.

이 희생의 사랑을 하는 것이

사탄의 뒤통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하여 사탄은 절대 선생을 이길 수 없으니

이는 사랑의 희생자, 사랑의 승리자가 선생이기 때문이다.

어떤 영광에서도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희생하는 선생의 사랑이 사탄의 뒤통을 제거하니

믿음과 겸손과 희생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장 큰 뒤통은 자신 즉 육성인 가인의 성격이니

너희는 기도와 감사와 말씀으로 육성의 뒤통을 제거하여

새 신부로 탄생하라.

선생이 기도함으로 사탄이 세상에 쳐 놓은

모든 뒤통을 제거하니

너희도 선생과 같이 기도하여

그들이 쳐 놓은 뒤통을 제거하라.

악평의 뒤통에 넘어지는 자는

사탄인 세상을 항상 엿보는 자이기 때문이니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

너희의 입과 눈과 귀를

나 예수와 선생에게 향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권면하니 시편 119편이다.

1. 시편 119편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2. 시편 119편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3.시편 119편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4.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5.시편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